

요산 김정한 문학에 나타난 섹슈얼리티

김 주 현*

차 례

- | | |
|----------------------|-----------------|
| I. 성과 권력 | IV. 전통의 재구축과 해체 |
| II. 구식 여성이라는 매개 | V. 그들을 대신하는 목소리 |
| III. 비속한 육체들의 전언(傳言) | |

국문초록

섹슈얼리티는 본질적으로 사회, 문화적인 구성물이다. 이 논문은 성(性)담론에 개입하는 권력의 영향을 중심축으로 삼아 김정한 문학에 나타난 사회적 약자들의 섹슈얼리티를 분석했다. 먼저 구식여성은 김정한 문학에서 두드러지는 존재로, 후기 작품에서도 계속 등장하면서 그 의미가 확장된다. 30년대 작품에서 구식여성은 당대의 '신여성' 담론과 그 때문에 생겨난 부정적 구식여성상 모두를 비껴가면서 당대인이 가졌을 구식여성에 대한 보편적인 감각을 보여준다. 그러나 60년대 후반에 이르면 이들은 국가와 의학 권력이 지배하는 열등한 섹슈얼리티를 가진, 시골여성, 나환자 등으로 그 의미가 전환되어, 그들의 비속한 신체와 대조되는 윤리성을 보여주면서 근대화 프로젝트를 비판한다. 「수라도」에서 구식여성은 유교의 봉건성을 극복하고 민중지향적인 불교와 연대해 전통 사상을 재구축하는 존재-가야부인으로 재현

* 동의대 연구교수

된다. 한편 「오끼나와에서 온 편지」에서 이들은 일제와 조국으로부터 외면당한 채 화자(서술자)에 의해 재현되는 종군 위안부이다. 이로써 보건대 김정환 문학의 ‘부권적’ 목소리에는 당대 여성 운동이 미처 제기하지 못한 민족주의와 젠더에 관한 자기 반성적 인식이 들어 있다.

주제어 : 구식 여성, 신여성, 섹슈얼리티, 전통 사상, 1960년대 민족문학론, 종군 위안부

I. 성과 권력

김정환 문학에 관한 연구는 드물지 않다. 민족문학사에서 요산이 차지하는 무게를 입증하듯, 요산 문학은 다양한 각도에서 연구되어왔다. 또 이 연구들은 평생 일관된 문학관을 견지했던 요산의 행장(行狀)에 의거해, 경미한 해석의 편차는 있을지언정 일부 작가의 경우처럼 특정 작품을 둘러싸고 연구자 간에 해석차가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충돌하는 양상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섹슈얼리티 연구는 사정이 다르다. 한 작가의 세계가 초지일관하더라도 여성문제를 다룰 때는 선이 굵은 작가라는 점이 여성문제에 관한 인식 수준을 담보하지 않는다. 요산은 대개의 남성 작가들과 마찬가지로 여성성이나 페미니즘을 의도적으로 추구하지 않았다. 사실상 국권회복을 떠나 자율적으로 존재하기 어려웠던 근대문학사에서 여성 작가를 제외하고 여성 문제는 국가나 민족의 뒷전에 있었고, 현대문학사를 더해도 이로부터 자유로운 작가는 많지 않을 것이다. 요산 문학이 이채로운 점은 그가 이 드문 몇 작가 안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후기 작품에서 요산은 여성 문제를 민족사에 대한 성찰로 확장하는 등 피식민지 민족 담론이 무의식적으로 범하기 쉬운 제국주의적 주체와의 동일성 욕망을 비껴간다. 그것은 요산의 통찰력이 민족사의 어두운 내부에까지 닿아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섹슈얼리티는 본질적으로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구성물¹⁾로 해당 시기 담론 지형의 영향을 받으면서 성차, 계급, 민족 등의 선을 따라 구축된다. 요산 문학에 나타난 섹슈얼리티 또한 이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데, 이 글은 그 섹슈얼리티를 시기별로 당대의 역사적 정황들과 대면시키며 통시적으로 구성해보고자 한다. 이 방법은 이미 근대문학사에서 이태준, 김남천, 김유정 등 주요 작가를 대상으로 깊이 있는 연구가 진행되었을 뿐 아니라, 대중 소설 같은 특정 장르의 문법을 밝히는 방법론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이 때 섹슈얼리티는 섹스(sex)와 젠더(gender)를 아울러 특정 방식으로 재현되는 성적 이미지와 성차(性差)에 주목함으로써 이러한 재현 방식이 당대 사회의 억압에 대한 남성적 주체의 왜곡된 오진 방식임을 설명해 왔다. 따라서 남성/여성의 대립적 구도를 취하면서 민족 또는 국가로 환원되는 남성 주체와 이들이 상대하는 개별적 여성을 가해자: 피해자의 관점에서 심층 분석하는 태도가 일반적이지만, 김정한 문학은 억압자(남성):피억압자(여성)이라는 성차보다 권력의 유무에 따라 그들의 섹슈얼리티가 재현되는 양상에 주목하는 편이 생산적이다. 이는 요산문학의 리얼리즘적 특질을 고려하는 것이자, 그의 문학에서 사회적 약자의 진폭이 종종 남녀구분 없이 나타나고 있는데 착안한 것이다.

요산 소설의 주인공들인 나환자, 상이군인, 농촌 여성, 노가다꾼들은 당대의 권력이 배제하고 추방시키려 한 사회적 약자들이므로 이들의 섹슈얼리티는 그 약자성과 분리해 논의되기 어렵다. 미셸 푸코가 적절히 밝혔듯이, 근대과학에서 섹슈얼리티는 성차보다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에 따라 그 속성이 폭로될 수 있는데²⁾, 요산이 활동했던 3,40년대와 60년대 이후는 우리 근대사에서 일제와 개발독재라는 권력 감시체제가 어느 때보다 잘 작동했던 때이다. 또 60년대 후반은 개발독재에 맞서 저항담론이 성장하는 시기이기도 했으니, 한편으로 요산 문학의 섹슈얼리티

1) Weeks, Jeffrey, 서동진·채규형 공역, 『섹슈얼리티:성의 정치』, 현실문화연구, 1994.

2) Foucault, Michel, 이규현 역, 『성의 역사 (1)』, 나남, 1993.

는 당대의 저항적 민족문학 담론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이 곧 가부장제와 같은 여성 억압의 전통적인 기제들, 엄연히 존재하는 성차, 계층적 차이 등을 무시하고 권력만을 준거로 삼겠다는 뜻은 아니다. 거시적으로 이들을 지배하는 권력은 일제와 개발독재라는 거대한 기구지만 일상에서 그것은 다시 중층 결정된 관습이나 무지, 심지어 신념과 같은 미시권력의 영향을 받으며 구체화된다. 그렇기에 이 항목들은 사회적 약자라는 큰 틀 안에서 다시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겠지만 일상에서 작동하는 가부장제는 이미 초기작에서도 크게 고려할 사항이 못 된다는 것이 이 글의 기본 시각이다. 오히려 필요한 것은 요산 문학에 두드러지는 특질들, 구체적으로 선/악, 억압/저항, 지배층/민중 등의 이원적 대립 구도가 섹슈얼리티를 특정 방식으로 구축하고 변형시키는 데 주목해 작품에 나타난 육체/정신의 선명한 대립을 역사화하는 태도이다.

II. 구식 여성이라는 매개

근대 계몽기, 신여성이 가정을 새롭게 운영하는 주체로 등장하면서 담론 층위에서 가장 피해를 입은 존재는 이른바 ‘구식 여성’이라 할 것이다. 당시 민족주의자들은 근대교육을 통한 여성 계몽과 전통적인 가정 유지라는 모순적인 임무를 신여성에게 부과했고, 그 결과 일제의 식민 통치책과 결합해 근대교육을 받은 상당수의 여성이 당대의 사회적 가치에 도전하는 신여성이 아니라 사적 영역에 머무르며 가정을 수호하는 ‘신(新)현모양처’가 되었다. 그런데 신여성이든 현모양처든 공히 근대적 모성술에 기반했다는 점에서 이는 당시 압도적인 수를 차지했던 구식 여성을 상대적으로 무시하고 부정적인 존재로 만드는 효과를 낳았다.³⁾ 연

3) 강이수, 「일제하 여성의 근대 경험과 여성성 형성의 차이」, 『사회과학연구』 13호,

령과 신분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당대의 조흔 풍습과 생산구조를 고려할 때 그 중에서도 보편적인 모델은 경제활동과 가사를 병행하는 여성일 것이다. 이들은 가족의 재생산을 책임지면서 농사를 비롯한 경제활동에도 참여하는, 식민지 가부장제의 최하위층에 자리한 존재들이다.

요산의 문학에서는 이 구식여성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후기로 갈수록 그 의미가 성별을 떠나 사회적 약자들을 표상하는 쪽으로 확장된다. 초기작품을 보더라도 구식 여성들은 빠짐없이 등장한다. 「옥심이」(1936)는 구식 여성이 전면에 나선 경우이며 그녀의 가출과 모성으로의 복귀를 놓고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옥심리와 같은 존재들은 여러 곳에서 확인된다. 「항진기」(1937), 「기로」(1938), 「낙일홍」(1940)에는 자식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어머니들이 나오며, 「사하촌」의 가동할머니는 물 건너 품팔이 간 아들의 소식이 돈돌되자 손자 양육에 여생을 걸고 「액년」(1956)의 차돌할머니 역시 억척스럽게 물일을 하며 손자 차돌을 키우는 등, 근대 문학사의 어느 페이지에서나 본 듯한 익숙한 여성들이 과장 없이 그려져 있다.⁴⁾ 여기서 보아야 할 것은 이들에 대한 서술자의 공평무사한 태도와 약화된 가부장의 권위이다. 굳이 당대의 신여성 담론을 거론하지 않아도 근대 초기 구식 여성에 대한 지식인의 태도에는 구식여성=조흔=인습이라는 도식이 암암리에 정립되어 있었다. 자유 연애를 부르짖은 「무정」으로부터 카프 문학의 수작 「고향」에 이르기까지 작품 속에서 가정과 구식 여성은 근대적 남성 주체의 신념을 방해하고 내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억압 기제로서 그 섹슈얼리티가 부정적으로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5 참고.

- 4) 특히 일제의 억압이 심화되는 4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양상은 '토속적인 것'의 발견과 결합한다. 이러한 할머니상은 비단 김정한 뿐 아니라 1950년대 황순원과 오영수의 소설에서 한국적인 여인상으로 변주되는데, 이들은 가부장제에 순종하고 자식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자신의 삶을 불가항력의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인물이다. 태평양-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굳어진 이 한국적인 여인상은 1960년대 '한국적인 것'을 둘러싼 신/구 문학 논쟁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별개의 고찰이 필요하다.

전유되어 왔다. 이러한 양상은 신여성이 표상체계에서 긍정/부정의 양의 성을 넘나들면서도 여성 해방의 측면에서는 일정한 진보성을 성취했던 점에 비추어 본다면 담론 차원이든, 문학 작품에서든 신여성이 여성해방의 헤게모니를 획득해가던 것과 대조적으로 실제 현실로부터 유리되어 부당하게 착취당한 측면이 있다. 근대 지식을 습득해 스스로 말할 수 있었던 신여성이 비해 이들은 누군가에 의해 재현되고 말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던 모성이 신여성에 의해 '논리적 설명'의 대상이 될 때는 '삼맥'(三脈) 연작⁵⁾이나 「나의 어머니」처럼 그 구속력이 상당했으니 남성 작가가 신여성 담론의 영향력에 감염되어 여성해방에 동의하는 근대적 주체와 습속에 젖은 보수성 사이에서 방황하다 흔히 자기모순적인 경향을 보이는 것도 놀랄 일은 아니었다. 이런 경향은 앞서 언급했던 작가들의 작품에서 어렵지 않게 확인되는 바이다.

이 자기모순성에 대해 「낙일홍」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이런 난리가 벌어져도 재모는 그저 손 되어 온 사람처럼 신평스럽게 구경만 할 따름이다. 오직 허둥대는 건 아내뿐이다 — 상 위에 행주질을 다시 한다, 어린것들을 이리저리 제자리에 앉힌다, 그리고도 또 칭얼거리는 찻먹이를 돌보러 건넌방으로 달려간다. 그러면서도 그는 남편에게 한마디도 불평이라고는 없다. 그는 그러한 여자였다. 재모는 가끔 무식한 구식여성이라고 나무라기도 하지만 이런 점을 보아서서는 짜장고맙기도 하였다.

입으로는 이해니 뭐니 하고들 떠들지만 사실 오늘날 소위 신여성으로서 이처럼 자기 남편을 이해해주는 여성이 과연 몇이나 될까 생각하며 재모는 깎두기 조각을 구수하게 씹어보는 것이었다.

재모는 가정생활에 있어서 자기의 등한한 태도를 결코 옳다고 생각한

5) 최정희, 『최정희 선집』, 어문각, 1983. 「천맥天脈」(1939), 「인맥人脈」(1940), 「지맥地脈」(1941)을 편의상 묶음. 백신애, 「나의 어머니」, 최혜실 편, 『아름다운 노을外』, 범우사, 2004.

다든가 또 하려고는 하지 않았다. 다만 이제 와서는 어쩔 수 없는 자기의 버릇이라고 여길 뿐이었다. 그리고 여자란 건 남자의 태도가 옳건 그르건 반드시 복종해야만 된다는 고린내 나는 사상을 가진 것도 아니지만, 자기 아내의 그러한 불간섭주의가 다행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바도 아니었다.(「낙일홍」, 223-224쪽)⁶⁾

인용문에서 드러나는 아내는 전통적인 현모양처와 다르지 않다. 신현모양처와의 차이라면 무식하다는 것, 다시 말해 근대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정도이다. 그런데 학교 훈도인 재모에게는 아내의 단점이 오히려 공/사를 분리해 공적 영역에서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하는 장점이 된다. 사실 근대적 남성주체의 입장에서 ‘불간섭주의’란 당대의 신여성에게 결핍된 전통적인 ‘부덕’의 다른 표현이다. 그럼에도 근대 초기의 지식인들이 신여성과 재혼하면서 내세운 명분은 자유연애와 더불어 구식 여성과는 달리 말이 통하는 ‘교양 있는 여성’을 향한 욕망이었다. 이 교양 있는 여성이 장차 기존의 남성(공적)영역에 진입해 공/사 영역의 구분을 허물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했지만 그들에게 닥친 당장의 문제는 상대 남성의 이혼이었다. 그러나 이는 본처(구식여성)와 합의하여 타당한 절차를 밟기보다는 일방적인 통보에 가깝게 구식여성의 권리를 무시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 점에서 인용문은 신/구여성에 대한 근대 초기 지식인 남성의 시선을 솔직하게 투영하고 있다.

여기서 「낙일홍」이 창작된 시대를 고려하면 그 의미는 조금 더 구체화된다. 주지하듯 1930년대 후반 문단의 태풍은 전향이었다. 일본에서 시작된 전향은 ‘전향소설’이라는 독특한 장르를 낳으며 조선에도 번지게 된다. 그런데 김남천, 한설야 등의 카프문인들이 30년대 후반 전향소설에서 전향과 관련해 신여성 아내에 대한 갈등을 토로하는 장면이 흥미롭다. 강제된 전향에 대한 반발심은 전향한 남성 주체의 왜소한 육체와

6) 김정환, 「낙일홍」, 『낙동강』 1, 시와사회사, 1994, 이하 작품 인용시 제목과 쪽수만 표기.

우울증을 건강하고 유희적인 섹슈얼리티를 가진 아내의 속물성과 대비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⁷⁾ 또 이러한 매저키즘은 타자인 여성과 여성 섹슈얼리티를 이용해 부당한 권력(일제)에 의해 위협받는 남성 주체의 재정립을 시도하는 대중소설들, 예컨대 이태준의 「성모」를 환기시킨다. 이밖에 들병이가 등장하는 김유정의 소설 역시, 구식 여성인 들병이 아내가 과장되게 희화화되어 있기는 하나, 그 섹슈얼리티와 남성 주체의 매저키즘이 반복 재현된다는 점에서 여성 섹슈얼리티를 부정적으로 활용하는 유사성이 있다. 이를 통해 보건대 1930년대 후반 근대문학사에서 사상이나 문학관에 관계없이 남성주체의 주체 (재)정립에 신/구 여성의 섹슈얼리티가 폭넓게 활용되는 국면이 펼쳐지고 있었고, 적어도 남성 주체의 입장에서 그것은 전향 이후의 낯선 상징계로 진입하는 강력하고도 수월한 해결책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요산의 문학에 이러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데서 우리는 요산이 이 무렵 절필했었다는 사실 외, 구식 여성을 모성으로 수용하는 일반적인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구식 여성=모성이 새로운 도식은 아니다. 그러나 요산문학에서 구식 여성은 근대 초기의 여성작가나 카프 작가처럼 그들의 자의식이 과도하게 매개된 존재가 아니라 성(聖)과 속(俗)의 경계를 지우고 양자를 통합할 수 있는 실재계의 인물이다. 30년대 작품에서 이는 조정자로서의 어머니로 구체화된다. 「항진기」에서 농군 두호가 나약한 사회주의자 형(두삼)을 이해하게 되는 계기는 두삼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을 확인하면서이다. 일제와 권력자는 작품의 배후에서 움직이지만 실제적인 갈등 축은 박첨지, 두호: 두삼이라는 무너진 가부장제에 있다. 이 때 어머니는 갈등의 조정자로서 혼란한 시대를 사는

7) 이러한 구도가 드러나는 대표적인 전향소설로 김남천의 「처를 때리고」, 「이런 안해」와 한설야의 「임금」, 「이녕」, 「종두」가 있다. 또 김남천의 「경영」과 「맥」에는 애인을 빼내기 위해 갖은 애를 쓴 신여성이 결국 그로부터 버림받는 모습이 나온다. 한민주, 「1930년대 후반기 전향소설에 나타난 남성 매저키즘의 의미」, 『여성문학연구』 10집, 한국여성문학학회, 2003, 참고.

청년의 내면을 보듬어 안는다.

네 아버지는 죄가 많을 거다. 자식을 어쩔 저렇게까지 원망을 한단 말고? 네 형이 집을 나간 건 바로 아버지 때문이지. 하고 싶어서 공부 좀더 한 것, 세상이 더러우니 판생각도 내 보고, 왜놈들에게 의심도 받고…… 그래, 그게 무슨 큰 잘못이라고 자나깨나 들볶아만 댔으니 전들 어찌……나무아미타불!”

어머니는 이렇게 웅얼웅얼 뇌다가 아궁이 가를 쓸어 넣고 일어섰다. 두호는 별안간 송구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어찌할 줄을 몰랐다. —어머니의 깊은 이해와 자식들에 대한 무한한 사랑에 새삼 고개가 숙여졌다. 그는 즉각 아버지나 자기는 어머니의 백 분의 일도 형의 입장을 존중해주지 못했다는 것을 뉘우쳤다.(『향진기』, 130-131쪽)

미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두호의 갑작스러운 뉘우침은 요산 소설의 미학적 결함-충분한 형상화를 거치지 못한-⁸⁾이지만, 이러한 어머니 자체는 충분히 존재할 만하다. 정작 문제는 모성에서 그 육체를 지우는 것일 터인데 이는 『옥심이』에서 어느 정도 해명되고 있다. 옥심의 모성은 신여성 담론의 영향을 받고 있다. 『옥심이』에서도 『물신전』 같은 시아버지와 문둥이 남편은 가부장으로서 권위가 대단히 미약하다. 반대로 옥심의 성적 에너지는 처음부터 약동하는 ‘봄’과 같이 자연스러우며, 수절은 가치 없는 것으로 서술되는 등 옥심이 처한 상황에서 그녀의 여성적 욕망은 당연한 것으로 서술된다.⁹⁾ 이 위기의 가정이 옥심의 섹슈

8) 이기인, 「김정한 소설의 심미성과 작가 의식」, 강진호 편, 『김정한』, 새미, 2002 참고.

9) 이러한 서술 태도는 곳곳에서 확인된다.

“봄은 고양이처럼 옥심의 귀천없는 마음 속에도 기어들었다. 시아버지의 말림도 듣지 않고 자진해서 나온 일이지만 도무지 낙이 붙지 않을 뿐, 이따금 미친 피가 전신을 옥신옥신 쭈시고 두 귀가 절로 멍해지며 마음은 한층 더 견잡을 수 없이 뒤설레었다.”(『옥심이』, 66쪽) 이 밖에 만두할머니 옥심을 두고 “수절이니 의리니, 그것 다 소용없소. 쉬운 말로 누가 열여덟부터 오늘날까지 과부로 늙은 날 위해 열너비 세워 줍니까? 그까짓것 또 세워 준들 뭘하우. 비석에서 밥 아니 나올

얼리트를 억압함으로써 유지되므로 가부장제의 구속력이 작용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약화된 가부장의 권위는 시아버지와 우호적인 관계 외, 옥심에게 문밖을 출입하는 자율성을 주었다. 물론 그 뒤에는 구식여자인 옥심의 미덕이 사실상 집안을 지탱하는 중추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옥심이 가출한 후 급속히 황폐해지는 집안이 이를 증명하거나, 그렇다면 옥심이는 결합이 가득한 가부장들의 결여를 채우는 ‘실재계의 상징’이라 할 수 있겠다. 옥심의 귀환이 “수복이를 못 잊겠”다는 모성애를 노골적으로 표하지만 역사적 맥락에서 이를 당대의 약자-결합있는 가부장-들에게로 돌아온 대모의 모습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녀는 가야부인(「수라도」)의 형상을 30여년 이르게 주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30년대 작품이 재현하는 모성은 매우 평면적이다. 그러나 바로 그 때문에 이 작품들은 당대의 신여성담론에 가려진, 구식여성에 대한 당대인의 보편적 인식을 보여준다. 첨단을 달리던 신여성=여성해방 사상을 벗어나 기층 민중의 자리에서 이러한 모성성은 여전히 당대인에게 익숙했을 모성 관념이며, 가부장의 권위가 약화된 식민지 농촌에서 모성의 역할이 그러했을 개연성 또한 충분하기 때문이다. 즉 1930년대 피식민지 농촌 가정의 갈등을 조절하는 핵심 기제로서 상기한 작품에서 모성은 이론이 승했던 신여성 담론이나 그 때문에 평가절하된 구식여성에 대한 인식 양자와 모두 일정한 거리가 있지만, 구식 여성과 가정을 강력한 계몽의 대상이나 자신을 억압하는 장애물로 바라보는 근대초기의 통념적 서사를 비껴간다는 점에서 균형 감각을 확보한다. 그러나 60년대에 들어서면 이러한 균형감각은 점차 권력에 저항하는 정신을 의미하는 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바에야”하고 말할 때, 시아버지 허서방이 옥심의 가출을 “구태여 원망하지 않는” 것이 그러하다.

Ⅲ. 비속한 육체들의 전언(傳言)

구식 여성은 1960년대 요산의 작품에서도 변함없이 등장한다. 「곰」(1968), 「뒷기미 나루」(1969), 「독메」(1970)의 순박한 여성인물들이 가정과 자식에 바치는 노력은 어머니 자연과 동일시된다. 그러나 그 존재성은 비극적이며 육체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속해져 있다. 그러므로 이 구식 여성에 개입하는 힘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1960년대에 국가가 주도한 경제개발계획이 국민을 감시/처벌/통제하면서 배제하고 추방한 잉여의 존재들을 따라가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지적할 점은 근대화 프로젝트가 사회를 변동시키면서 병원, 제도, 의학 지식과 같은 권력들이 사회체(social body)들을 통제하고자 개인의 섹슈얼리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푸코의 저작들이 알려주듯, 섹슈얼리티는 사회질서를 규제하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권력의 강력한 매개체이다. 6,70년대는 국가권력이 최고점에 달한 시기였고, 근대화는 전국민적인 과제였다. 농촌 출신 청년들의 노동력이 근대화의 명분 아래 착취되었고 심지어 여성들의 매춘이 권력자의 입을 통해 애국심으로 미화되었다.¹⁰⁾

「모래톱 이야기」(1966)로 활동을 재개한 요산이 이러한 근대화를 과거사를 반복하는 부당한 권력의 행태로 느꼈던 것도 국민국가에서 어이 없이 비(非)국민으로 내몰리는 존재들을 목도했기 때문이었다. 예컨대 「뒷기미 나루」에는 국가권력이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전의 풍요로운 한때가 낙동강변 부부의 건강한 섹슈얼리티로 형상화되어 있지만 근대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이들의 섹슈얼리티는 계몽되어야 하는 무지한 정신, 혹은 공존할 수 없는 비천한 육체로 전락한다. 사실 「축생도」(畜生道)(1968)의 시어머니처럼 1960년대의 지식담론에서 농촌은 첫 번째 계몽 대상으로 꾸준히 지명된 경향이 있었다. 미신, 게으름, 운명론은

10) 박종성, 『권력과 매춘』, 인간사랑, 1997.

농촌 근대화의 대표적인 걸림돌이었다.¹¹⁾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함으로써 권력과 자본의 의도에 효과적으로 농촌을 편입시킬 수 있었으니, 분통이의 모성을 가축의 그것으로 전락시키고 치료마저 징벌하는 의료 법이야말로 자본과 제도에 매개된 농촌여성의 섹슈얼리티를 가감 없이 폭로한다.

분통이는 곧 방으로 옮겨졌다. 반은 죽은 몸 같았다.

수의사는 부리나케, 발이 드리워져 있는 나들잇문을 닫아 걸곤, 솟돌을 꺼내 칼을 썩썩 갈기 시작했다. 물론 동물에게 쓰던 칼이었다.

드디어 분통이는 수의사의 손에 수술을 받았다. 엄청나게 부어오른 그녀의 두 젖통이에서 누런 고름이 엄청나게 흘러 내렸다. 아주 깊은 데까지 꿰어 있었던 것이다.

임시 조수 구실을 하고 있던 바우는 아내의 젖통이에서 흘러내리는 농즙을 닦아내며 소리 없는 울음을 울었다.(『축생도』, 194쪽)¹²⁾

병원이 외면한 분통이를 치료한 수의사는 김정한 소설에 등장하는 십지 곧은 남성애 속한다. 그러나 분통이가 가축 치료대에 올려진 순간 분통이의 유방은 모성의 상징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치료해야 할 ‘끓은 젖통이’이다. 이 표현은 작가가 다분히 의도된 바이나, 그렇게 표상되는 무지한 여성상은 근대의학지식이 부여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제3병동』에서 병든 시골처녀 강남옥의 자연스러운 섹슈얼리티가 양심적인 의사 김중우의 응시를 통과하면서 어딘가 질병과 어울리지 않는 부자연스러

11) 김주현, 「1960년대 소설의 전통인식 연구」, 중앙대 박사논문, 2006, 110쪽.

『축생도』에서 시어머니는 흉년을 분통이 탓으로 돌리고 나란히 출산을 앞두고 분통이를 내쫓는 등 미신을 신봉한다. 『옥심』에서도 보인 악질 시어머니상은 인자하고 사려 깊은 시아버지와 매우 대조적인데, 김정한 문학의 특질인 대립적 원리가 미시권력 차원에서 작동할 때 이런 양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립은 가부장제에서 왜곡된 여성들의 권력구조를 폭로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요산 소설의 저항적인 인물이 거의 남성 노인인 점에서 남성성에 대한 일정한 편향을 드러낸다.

12) 『축생도』, 민중환 편, 『낙일홍』, 경덕출판사, 2007.

운 것으로 인식되는 것과 유사하다. 강남옥의 질병과 무지는 생물학적으로 충분히 아름다운 19세 처녀의 젊은 육체를 근대적 의학 지식 권력에 의해 ‘판단’되고 ‘설명’되어야 할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표면상 서술자가 그것을 비인간적인 근대학과 대조되는 특별한 인간성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과 달리, 그녀의 ‘알맞은 지방’과 ‘찰대로 찬 생리의 연륜’을 좋지 못한 영양상태, 후줄근한 속옷 등과 병치시켜 결과적으로 그녀의 육체를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3등 인간’으로 강등시키는 데 일조한다. 병원 의사의 의료행위는 생체에 개입하는 의학 권력으로서 심작은돌 노파의 전인성(全人性)을 “골이 죽죽 진 가슴패기”나 “탄력을 잃은 피부”를 가진 하등 신체로 절단하면서 이들에게도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최소한의 성적 요소들이 있다는 당연한 사실을 무의미하게 만든다. 즉 서술자가 이들 구식여성들의 섹슈얼리티를 고전적인 정신/육체의 대립으로 분리해 전자의 순박함을 옹호하는 것과 별개로, 실제로 병원에서 내쫓긴 3등 인간들의 육체와 정신이 그렇듯 가치 있게 구분될 가능성은 희박하다.¹³⁾

그러므로 문제는 육체(비천한 몸): 정신(고귀한 정신)이 아니라 이들의 섹슈얼리티를 대립으로 몰아넣는 구조의 모순-다시 말해 60년대 정권의 근대화 프로젝트가 국민의 육체를 기계적으로 배치/선택/배제하면서 만들어진 비숙한 육체들이 그 숙된 육체를 이탈해 성스러운 정신으로 표상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메커니즘이다. 전도된 성과 속은 성에 개입하는 권력의 징표이기도 한 때문이다. 또 이것은 구식여성에 대한 폭력의 책임을 뭉뚱그려 국가에 묻는 방식을 넘어 이제 구식여성 자체를 성차, 계급, 제도의 제차원에서 추방되어 비국민이 되어가는 약자들로 확장시킬 필요성을 제공하는데, 이러한 제문제를 총화한 존재가 나환자이다. 이미 「옥심이」에서 시작되고 있었던 나환자에 대한 관심은 「인간

13) “효도니 뭐니 하는 그런 너절한 것이 아니다! 훨씬 본질적인 것, 어쩔 과학 따위에 의해서, 혹은 현대인의 그 약삭빠른 비굴성이랄까, 거짓 이기주의의…… 아무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말살되어 가고 있는, 그런 무엇이 아닐까?” 「제3병동」, 116쪽.

단지」에서 총체성을 띠게 된다. 주의할 것은 「옥심이」와 달리 여기서는 성차가 문제되지 않는 점이다.

「옥심이」의 문둥이 남편은 가부장의 권력과 천형(天刑)의 병 사이에서 갈등했지만 「인간단지」의 나환자들은 모두 남자들이다. 이들의 비속한 육체와 충돌하는 타자는 건강한 육체들-박원장과 그가 운영하는 희망원의 부랑 청소년들이다. 따라서 이들이 건강한 육체를 갖지 못한 것은 치명적인 결함이다. 법, 제도, 관습 어느 것 하나 제 편이 아닐 때 병든 주체는 그보다 강자에게 자신을 내맡기는 수밖에 없고, 그 권리를 위임받은 박원장은 이들에 대해 국가 권력을 대리하는 위치에 선다. 즉 「인간단지」에서 「아버지의 법」¹⁴⁾은 국가(조국)→박원장·의료법→희망원 부랑아 순서로 내려오면서 나환자들의 존재를 어디에도 깰 수 없는 잉여의 존재-비국민으로 규정한다. 인간으로서 이들은 성욕마저도 짐승과 다를 바 없다. 실소를 자아내는 ‘소신랑’ 에피소드¹⁵⁾는 나환자들의 본능을 ‘뿔아터지고 진물이 흐르는 눈’이나 없어진 손가락처럼 비정상적인 질병 상태, 혹은 훼손된 사물로 표상한다. 여기서 나환자들이 음성이라는 의학적 판정은 사실상 별 기능을 하지 못한다. 이는 나환자들의 욕망을 정당화하는 최소한의 내적 장치일 뿐이다.

오히려 우리는 나환자들의 욕망이 성적 문제 따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조국」을 거론하고¹⁶⁾ 인간 대접을 주장하는 데 주목해야 한다. 그래서

14) Freud, Sigmund, 김종엽 역, 『토템과 타부』, 문예마당, 1995.

15) 다음 본문을 참고할 것. “지난봄이던가, 한 놈이 남의 집 소를 건드렸을 때도 그랬다(그놈은 그 때문에 소신랑이란 별명을 얻었다)—마침 지나 오다 보니 실박진 암소 한 마리가 어떤 외진 무덤 옆에 나무죽이 누워 있었는데, 그자의 말을 들으면 여자로 치면 바로 그 짝이 발짱고 헤발쭉하게 약간 벌어져 있더라. 그래서 불같이 일어나는 욕정에 그만 술가지를 하나 꺾어 가지고 가서 그놈의 등줄기를 쓸쓸 긁어주면서 암소의 거기다 자기의 그것을 들이밀고 꺾적거리다 재수없게 주인에게 들켰는데, 그 소 주인이 찾아와서 자유원 식구들을 보고 욕지거리를 했을 때도 우영감은 “얼매나 답답한 처지였길래”란 말을 해서 타일러 보냈고, 그 뒤 한 식구들이 그놈을 놀렸을 때도 역시 그런 투로 나무랐다.“(「인간단지」, 272쪽)

비속한 육체는 도덕적 우월성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상당 부분은 우중신 노인의 비범한 전력에서 기인한다. 우중신 노인의 내력은 근대계몽기 서사에 흔한 가족 갈등을 특수한 형태로 변형한 것이다. 우중신 노인에게 나병을 옮긴 이는 조흔한 아내인데, 그 병의 시작이 시조 부였던 데서 그는 자신이 방치했던 복들의 불행한 삶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요구받았다. 따라서 그가 일본유학에서 돌아와 집안의 반대를 물리치고 수용소에서 복들을 찾아내 새 삶을 시작했다는 것은, 소설의 개연성을 고려했다기보다 그것이 ‘인간으로서 마땅한 도리’이며, 그로써 복들을 나환자로 만든 가부장제에 속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하고도 이상적인 개인 차원의 속죄이다. 허나 이렇게 나환자가 된 우중신 노인의 신체에는 도덕적 우월성이 매개되어 있고, 그것은 그를 대표로 추대한 나환자들에게까지 파급된다. 그들이 꿈꾼 ‘인간단지’는 이 도덕적 우월성이 보증하는 정직한 노동과 협동심에 기초한 소박한 자립공동체이다. 그러나 이조차 허용되지 않을 때 그들은 신체의 한계를 딛고 육체를 감금한 권력에 ‘저항’한다. 데모를 이끌었다는 이유로 우중신과 치구가 국립 나환자 수용소에 다시 갇히는 장면은 이 전환을 간명하게 요약해 준다.

아무도 가르쳐 주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그곳으로 되끌려간 이유는 그들 자신이 곧 깨달았다—일종의 격리다. **병—육체의—그것도 남에게의**

16) “우중신 노인은 별안간 서글픈 생각이 들었다. 더구나 어려운 매축으로 말미암아, 박성일 원장이 국토개발상인가 뭔가를 탔다는 사실을 회상하면, 이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조국인가 하는 한심한 생각마저 들었다. 협잡꾼들을 위한 조국이라면 심한 말이 되겠고, 적어도 그러한 협잡배들이 득세를 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다싶었다.”(『인간단지』, 274쪽)

조국에 대한 우중신 노인의 언급은 서술자의 태도와 거의 분리되지 않는다. 개펄을 매우는 노동에 나환자들이 동원될 때, 인간단지를 세우려고 동사무소 관리들과 접촉할 때, 인근 주민들과 싸울 때 우중신 노인의 의식속에는 그 행위가 조국이 허용하는 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선형적으로 작용한다.

전염을 방지하기 위한, 격리 본래의 목적에 의한 격리가 아니다. 정신 문제다. 정신상의 병— 불의와 부정을 싫어한다, 미워한다, 협잡배와 위선자를 고발한다, 규탄한다, 이것이 병이란 거다.(…)말하자면 전염이다. 데모는 그와 같은 정신병의 완전한 전염이란 거다.(…)가령, 박성일 원장이나 그를 두둔하고 감싸주는 사람들이 입장에서 볼 때는 우중신 노인이나 치구 같은 사람은 확실히 무서운 보균자임에 틀림없다.(『인간단지』, 277-278쪽)

여기에 이르면 나환자들과 정상인에 대한 판단은 전도되어 있다. 성스러운 것은 나환자들이다. 이 뒤바뀐 성과 속은 근대화를 비판하면서 성장한 60년대의 민족문학 담론이 사회적 약자에게 내미는 연대의 표현일지 모른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추상적인 구석이 없을 수 없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국가가 국민을 불평등하게 대할 때, 저항의 권리는 배제된 자들에게 있다고 하는 점에서, 이들이 자유원을 나와 인간단지를 만드는 장면은 이후에 성취될 저항적 민족문학 작품의 전범으로 파악될 만다. 그렇다면 인근 주민과의 싸움에서 패배해 그 꿈이 좌절되는 결말 역시 갈등의 기본 축이 흔들리는 미학적 결합이기보다는(그런 측면도 있지만) 중층 결정된 미시권력에 대해서도 여전히 정당한 그들의 권리에 대한 옹호일 것이다.

IV. 전통의 재구축과 해체

『수라도』(1969)는 요산의 작품 중 가장 넓고 깊게 연구되어온 작품이다. 작품에 나타난 여성 원리¹⁷⁾를 위시해, 6,70년대 민족문학사에서 차지하는 위상¹⁸⁾까지 『수라도』는 요산 문학의 수작으로 꼽히며 『인간단

17) 송명희, 「김정환의 『수라도』에 나타난 여성원리」, 『현대소설연구』 5, 한국현대소설학회, 1996.

18) 이상갑, 「한국문학에서 제국주의와 여성」; 이상갑, 「역사에 대한 비극적 인식,

지」보다 10개월 앞서 발표되었다. 그 전작은 「축생도」, 「제3병동」, 「굴살이」 등이며 후작에 「지옥변」(1970), 「인간단지」(1970), 「사뱃재」(1971) 등이 있으니 따져보면 복귀 후 창작열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69년과 70년에 썼던 일련의 작품들 안에 「수라도」가 있는 셈이다.¹⁹⁾ 여기서 상기한 작품들의 모티프나 주제의식이 일관된 것은 「수라도」 해석에서 두 가지 점을 고려해야 함을 환기시킨다. 첫째는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인접 작품들을 참고해야 한다는 것. 「수라도」는 위에서 열거한 작품들과 나란히 놓일 때 충분히 열린 텍스트로서 주어지는데, 「수라도」의 주인공 가야부인 역시 구식여성인 데서 이 점은 어느 정도 해명되어 있다. 둘째는 60년대 후반에 일어난 민족문학론의 영향이다. 60년대 후반은 전통 계승론이 심화되면서 민족문학론이 정립되는 시기였고, 요산의 작품은 여러 비평가들에 의해 당대의 민족문학으로 지목받았다.²⁰⁾ 이를 고려하면서 「수라도」를 읽으면 이 작품에서 당대의 민족문학론을 상기시키는 몇몇 모티프들을 눈여겨보게 된다.

그 첫째는 유교사상이다. 개화기 이후 전근대적 인습으로 취급받은 유교는 60년대 민족문학론이 전개되면서 관제담론은 물론이고 정태용, 장일우와 같은 소장 평론가들로부터도 되살려야 할 ‘민족적 전통’으로 재발견되었다. 그러나 이들이 유교적 충효와 여성의 자기희생을 당대가 요구하는 “시대정신”, “지도적 이념”으로 호명하면서 가부장제에 대해서도 일정한 편향을 드러낸 것은 전통 계승론에 적극적이었던 이른바 4.19세대가 극복해야 하는 부분이었다.²¹⁾ 이에 대해 국문학도가 주가 된 4.19

그 순환 구조(「수라도」문), 강진호 편, 앞의 책 참고.

19) 문단 복귀 후 요산은 한 해 평균 한 두 편의 작품을 발표했으나, 69, 70, 71년에 중편을 포함해 3편 이상을 발표한다. 69년 부산대에 복직해 삶의 자리가 안정된 것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낙동강』 2의 「요산 김정환 선생 연보」 참고.

20) 김종출, 「김정환론」, 『현대문학』 1969.1; 염무웅, 「농촌문학론」, 『창작과비평』 1970. 가을호; 김병걸, 「김정환 문학과 리얼리즘」, 『창작과비평』, 1972. 봄호.

21) 국문학사의 연속성에 입각해 전통계승론을 옹호했던 정태용(「한국적인 것과 문학」, 『현대문학』, 1963. 2)과 장일우의 논리는 그 자체로 민족문학론에서 일정한

세대들은 실학파의 개혁사상과 민중의 편에 선 문사의식을 내세워 전통론의 돌파구를 찾는 한편, 그러한 전통이 계승된 당대의 작품으로 요산의 소설을 꼽았으니 「수라도」는 기왕의 민족주의 유교의식을 체화한 가야부인이 스스로를 낮추어 민중과 함께 하는 유교를 선보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수라도」는 60년대 후반 활발하게 재해석되기 시작한 유교의 인본주의를 작품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집안을 건사하기 위해 가야부인이 택한 농사와 길쌈은 그 육체를 민중적으로 길들이는 과정이다. 시비(侍婢)를 거느리고 당당하게 시집갔던 가야부인은 이십 년이 지나 사실상 쇠락한 시가의 경영자로서 ‘세 개의 긴 주름’과 ‘누르듯통하게 탄력을 잃은 살결’, ‘희끗희끗한 서터발’이 남은 평범한 시골 아낙네가 되어 있다. 변모는 그녀가 뜰을 개방해 곤한 아낙네들을 재우다 오봉선생에게 들키는 파격적인 행동에서도 드러난다. 이 상징적 의식은, 비록 한계는 있지만, 오봉선생이 자신의 집을 “농가”로 호명하게 하는 등 뺏속까지 유학자인 가부장이 있는 양반가문을 탈권위적인 유교가문으로 빚어낸다. 이렇게 본다면 이 고색창연한 가문의 변화는 곧 구식여성 가야부인이 스스로를 낮춤으로써 획득한 개혁이다.

성취를 보이지만 춘향의 사랑과 「금오신화」 여주인공의 애국심을 훌륭한 전통으로 강조하는 등 한계 또한 분명했다. (“그것은 사랑 곧 자기희생의 모랄이며美學이다. (…) 이것은 프랑스적 또는 실존주의적 ‘內面的葛藤’은 아닐 수 있으나 이 나라 겨레, 이 나라 전통적인 인간 탐구의 방식이며 인간탐구의 독자적 형식이었다. 古代說話文學에서의 여주인공들(「온달전」, 「도미의 아내」 기타)과 김시습의 『금오신화』의 여주인공들(崔娘을 상기하라)의 고민과 자기희생, 그것은 인간가치에 대한 우리 겨레의 평가이며 그것은 ‘他者 卽 自我’ 人間觀이며, 그것은 자기조국을 목숨으로 사랑하는 애국적 人間觀이다.”(장일우, 「한국적인 것과 전통적인 것」, 『자유문학』 1963.6.) 또 장일우가 활약했던 『한양』은 ‘민주주의’보다 ‘민족주의’를 우위에 두고 집단적 주체인 민족을 최고의 가치에 두는 등 그로 인해 충, 효를 내세워 민족 구성원의 단결을 꾀한 당대 정권과의 비판적 거리가 소실되기도 했다. 1960년대 전통 계승론에 자세한 논의는 김주현 앞의 논문 33~48쪽 참조.

그러나 한편으로 이는 여전히 ‘유교적 충효’에 기반한 데서, 민중의 애국심을 이용했던 당대의 지배이데올로기에 포섭되는 측면이 보이는데, 이는 요산이 비판했던 근대화 프로젝트의 핵심이기도 했으니, 「수라도」에서 여성들의 불심(佛心)은 이에 대한 안전장치인 셈이다. 예컨대 절건립 문제로 가야부인이 오봉선생의 반대에 직면했을 때, 서술자는 시어머니의 관점을 빌어 가문의 여인들이 “삼종지례”니 ‘칠거지악’이니 하는 무쇠 같은 유교의 계율”에 억눌려 “멀쩡한 노예”로 살았다고 씬으로써 가부장제의 폐단을 구체적으로 지적한다. 따라서 이에 맞서는 불교의 평등사상과 민중지향성은 가부장적 유교와 대립하면서 시어머니, 가야부인, 마을 여인들의 자매애를 낳고, 그 중심에 있는 가야부인의 섹슈얼리티를 대자대비(大慈大悲)한 부처의 그것으로 격상시킨다.

① 가야부인은 곧 시어머니에게로 건너갔다. 그냥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때 무슨 말을 여쭙었는지는 기억에 확실치 않았다. 다만—어머님 내일이라도 어느 절에 좀 다녀오시소! 통도사도 좋고, 밀양 표충사도 안 좋겠능지요. 밀양 같음 밀양 동시를 데리고…밀양 동시도 저래 외롭게 지내이칸에!……아마 이러한 내용이 아니었던가 짐작되었다. 또렷이 생각나는 것은 그때 시어머니께서 눈이 오끔해 가지고서 자기를 뚫어지게 건너다보았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다.

“오냐, 너가 내 눈에 꼭 관세음보살 같구나!”

느껴왔던 타인지 말소리조차 약간 떨렸다. 그렇게 말하는 입가에는 난데없이 미소까지 떠올라 있었다. 이튿날 아침 가야부인은 서둘러서, 시어머니에게 시춧돈을 쥐어 주었다.

“오냐, 곧 돌아오꾸마!”

홀로 사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처음으로 집안이 알게 절구경을 나서는 시어머니의 눈에는 이슬 같은 것이 맺혀 있었다. 마치 그것이 오래도록 그녀의 뉘를 억누르고 있었던 두터운 안개가 가시어지는 듯한 해방감의 표시인 듯이.(「수라도」, 159-160쪽)

② 손자녀를, 자식을, 남편을, 딸을 그렇게 빼앗긴 할머니, 어머니, 아

버지, 아내들은 태고 나무에서 눈물을 짓다 가까운 미륵당을 찾기가 일쑤였다. “명천 하느님요!”하고 땅을 치던 그들은 말없는 미륵불 앞에 엎드리어 떠난 아들 딸들이 무사히 살아 돌아오기를 빌고 또 비는 것이었다.(…) 무슨 기도를 드려 소원성취를 한다기보다 아들, 딸, 남편, 손자녀들을 억울하게 빼앗긴 그녀들은 거기서 어떤 마음의 위안을 얻곤 하였던 것이다.(『수라도』, 202-203쪽)

①, ②에는 가야부인으로 환원되는 「수라도」의 민중지향성이 잘 드러나 있다. 그것은 노쇠한 가야부인의 육체에 깃든 성스러움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이 속(俗)을 껴안은 성스러움은 가야부인이 발견한 부처가 다름 아닌 중생구제의 소명을 받은 ‘미륵불’인 데서도 알 수 있다. 오봉 선생을 움직인 승병의 사례가 불교와 유교의 소통지점을 ‘애국심’으로 묶어낸다면 미륵불은 유교와 구분되는 불교의 민중사상을 의미한다. 가야부인은 미륵당을 ‘고통스럽게 남겨진’ 여성들의 쉼터로 만듦으로써, 일제 강점기 최하위 층에 위치한 여성들의 육체와 정신이 종교를 축대로 한 차원 높이 통합되는 국면을 보여주는데, 달리 말하면 이는 가야부인의 섹슈얼리티가 담론 차원으로 전환함으로써 획득한, 1960년대 저항적 민족문학 담론에 매개된 역사인식의 깊이이기도 하다. 즉 「수라도」의 유(儒), 불(佛)사상이 보여주는 전통사상의 인본주의는 60년대 후반의 민족사 인식이 왕조 중심 사관에서 민중 중심 사관으로 이동하면서 민중을 윤리적이고 선한 존재로 파악하는 시각과 통한다. 그렇기에 이 통합 과정은 구식 여성들의 육체보다 가족들의 무사귀환을 기원하는 정신적인 측면을 살리는 쪽으로 진행된다. 이 점에서 ②에 해방 후 우리 문학사에 등장하는 전형적인 여성상이 감지됨은 필연적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수라도」에는 해체되는 전통도 보인다. 무당 천금새는 그 반민중성에서 작가의 의도성이 매우 짙다. 본디 가야부인의 후의를 입은 천금새가 악역을 맡은 까닭은 미륵당 때문에 생계가 곤란해졌기 때문이다.

납득 못할 상황이 아닌 것이다. 그런데도 천금새는, 마치 무당에 대한 근대 이후 계몽 담론의 고정된 시선-비합리적이고 주술적이며 성적이기까지 한-을 반영하듯이, 이기적인 반동인물로 서술된다. 미륵당을 저주하며 “사시나무처럼 전신을 떨어”대고 “별안간 눈이 상스럽게 빛나며”, “미친 듯이 일어서는” 천금새의 행위들은 근대 문학 작품에서 이성의 타자로 무당을 내세울 때 상투적인 표현들이다. 병든 이와모도를 위해 연 곳의 실패 또한, 오봉 선생의 죽음에 부담을 느낀 이와모도 참봉이 석연치 않게 병석에 누워 미주알이 빠지는 고약한 질병-치질에 시달리면서 비루한 죽음을 맞는 것과 유사하게, 그 반민중성에 대한 응징으로도 입된 측면이 크다. 이 장면은 권선징악적 분위기조차 풍기면서 ‘민족적인 가야부인’: ‘이기적인 천금새’의 대립을 낳는다.

그런즉 「수라도」의 천금새 형상화는 분명히 부당한 측면이 있다. 그 단순성은 가야부인의 입체성과 대조되어 서사의 인과적 완결성을 방해하고 고유 사상으로서의 깊이에도 미달한다.²²⁾ 허나 일찍부터 무속에 주목했던 김동리의 「을화」를 보더라도 무속은 주로 미학적으로 다루어진 정도이니 60년대의 리얼리즘 문학이나 민족문학 담론에서 합리성을 벗어나는 무속을 다른 방식으로 다루기는 어려웠을 터이다. 그것은 60년대의 민족주의 담론이 4.19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데서 한층 분명해진다. 이러한 한계를 감안하면 천금새와 친일파의 결합은 「축생도」, 「인간단지」 등의 전작에서 억압당한 비국민의 육체보다 더 비루한 권력자들의 탐욕을, 청산되지 못한 과거사를, 텍스트 차원에서나마 심판하기 위

22) 「수라도」의 서사 진행에서 비합리성은 다양하게 개입한다. 시종 온화했던 가야부인이 미륵당을 세우기 위해 고명딸의 시체가 있는 술밭으로 달려가 흐느끼면서 입체성을 획득하는 것이나, 오봉선생의 장례에서 모욕을 당한 이와모도가 자신을 꾸짖은 김진사의 얼굴을 닮은 천장지 무늬 때문에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는 것은 편의상 비합리성을 도입한 것이다. 또 작품에서와 달리 미륵신앙과 무속은 많은 부분 융합되어 실제로는 그다지 대립적이지 않았다. 이밖에 가야부인이 발견한 미륵불이 미륵당 건립의 절대적 명분이 되는 것도 전통적인 사찰연기설화에 빚지고 있다.

해 익숙한 틀을 채택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가야부인 가문이 해방이 되고서도 변함없이 수난을 겪는데 반해 이와모도 참봉가는 나날이 번영했다는, 텍스트 말미의 ‘불편한 진실’로도 이를 알 수 있는 바이다.

V. 그들을 대신하는 목소리

그럼에도 「수라도」에 ‘부권화된 여성’²³⁾의 그림자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 옥이의 정신대 차출을 실제로 막은 이는 가야부인의 사위이며, 가야부인의 몸종옥이와의 결혼 또한 그의 의지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적은 다음의 의문을 제기한다. 누가 옥이와 같은 하위 층을 대변할 수 있는가? 그들을 대변하는 목소리는 누구의 것인가? 이 질문은 77년에 내놓은 「오끼나와에서 온 편지」에 이어지게 마련이다. 「오끼나와에서 온 편지」는 가야부인과 같은 구체적 형상화 대신, 오끼나와의 계절 노동자 복진이 그곳에서 목도한 태평양 전쟁의 역사적 진실을 본인의 시각과 그녀를 고용한 일본인 부자의 시각을 병치해 들려준다. 복진의 부친처럼 하야시 노인 역시 제국의 신민으로 전쟁에 동원되었고, 전쟁 말기에 미군의 폭격으로 오끼나와의 집과 자식을 잃었다. 이렇게 해서 고용인: 피고용인의 관계는 제국주의 전쟁이 만들어낸 동료와 같은 동병상련의 관계로 전환한다.

그러나 이보다 인상적인 것은 아들 다게오가 조선인 정신대 여성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면서 민족반역자와 내적 식민성을 꼬집는 대목이다. 복진은 그의 말에 내쳐 ‘분노’와 ‘부끄러움’을 느끼고 “우리엔겐 무언가 잘못된 게 있는 것 같”다고 되낸다. 물론 그것은 작가가 앞의 작품들에서 줄곧 지적했던, 청산하지 못한 과거사와 빛 좋은 근대화 전체를 뜻하지만, 특별히 정신대 문제와 관련하여 상해택의 존재는 끝내 ‘팔려간 옥

23) 이상갑, 앞의 글, 277쪽.

이'를 상기시킨다. 상해택은 전쟁이 끝난 후에도 돌아가지 못한 “위안부 퇴물”이다. 그녀는 식민지 조선과 한국이 위안부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마치 소유물처럼 이용한 후 용도폐기하는 사례를 보여주는데, 한편으로 결절한 여장부의 풍모조차 풍기는 그녀가 정작 조국에 연결되는 방식은 오끼나와에 버려진 고아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거나 혹은 속아서 공사장 인부로 팔려온 고국의 처녀들을 불쌍히 여기는 자기연민을 통해서이다. 즉 “고향에도 못 가고 그런 데서 그런 짓을 하고 살아가는 그녀(상해택-인용자)에 대한 가없는 생각과 그녀를 그렇게 만든 사람들에 대한 울분”(458쪽)을 느끼는 화자의 태도에는 그 책임을 제국주의 일본 외 근대화된 조국에도 묻는 서술자의 분노가 겹쳐 있다. 그리고 요산 문학에서 이는 새로운 태도가 아니다.

일본 민족주의와 젠더 문제를 연구한 우에노 치즈코는 전시 위안부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이 위안부의 섹슈얼리티를 가부장제 국가의 소유권으로 간주했던 한, 일 양국의 타협적 공모라고 지적한 바 있다. 위안부의 섹슈얼리티는 1991년 김학순이 조선인 위안부로서 처음으로 자신을 드러내기 전, 그리고 이후에도 여전히, 침범당한 ‘국가(민족)의 순결’이라는 남성적 담론 질서에 간혀 성적 자기 결정권을 훼손당한 개별 여성의 정당한 권리로는 논의되지 못했다.²⁴⁾ 이 작품이 발표되었던 시기를 고려하면, 결국 여성의 순결을 애국심으로 포장하면서도 정작 위안부의 정조에 대해서는 침묵했던 당대의 분위기야말로 상해택이 고향에 갈 수 없었던 진정한 이유일 것이다. 고아와 처녀들 역시 조국이 지키지 못한 약자들이라는 점에서는 다를 바 없다. 그러므로 ‘팔려가는 처녀’들에 대한 텍스트의 공분(公憤)은 한국의 여성운동이 80년대까지 민족, 민주 담론에 쫓겨 성장하면서 지배 뿐 아니라 저항담론의 가부장적 권위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각을 세우지 못했던 정황을 헤아리지 않으면 안 된다.

24) Ueno, Chizuko, 이선이 역, 『내셔널리즘과 젠더』, 박종철출판사, 1999, 97~148쪽 참고

다께오의 말처럼 “쓸개빠진 타협과 눈물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 하지만, 그렇다고 말할 준비가 되지 않은 그들을 방치할 수도 없을 때 누군가는 그들을 대신해 말해야 했던 것이다. 이 경우 그의 성별이나 계급적 한계, 미적 완성도는 다음 세대가 극복해야 할 과제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민족문학론이 있었기에 탈식민 담론이 활발해진 것처럼, 그 존재만으로 가치 있는 작품에 대해 인식할 필요 또한 없을 것이다. 정신대 문제를 최초로 다룬 이 작품들은 요산이 지향했던 리얼리즘 정신의 폭과 깊이가 내셔널리즘과 젠더 의식에 닿는 장면을 보여준다. 이는 또한 권력과의 관계 구도에서 약자들의 섹슈얼리티를 재현하는 요산 문학의 특징을 재입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1. 기초자료

- 김정한, 『낙동강』 1, 2, 시와사회사, 1994.
김정한, 민충환 편, 『낙일홍』, 경덕출판사, 2007.
김정한, 『낙동강의 파숫군』, 한길사, 1978.

2. 논문 및 단행본

- 장이수, 「일제하 여성의 근대 경험과 여성성 형성의 ‘차이」, 『사회과학 연구』 13,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5, 96-132쪽.
- 강진호 편, 『김정한』, 새미, 2002.
- 김병걸, 「김정한 문학과 리얼리즘」, 『창작과비평』, 1972. 봄호.
- 김양선, 「1930년대 소설과 식민지 무의식의 한 양상」, 『한국근대문학연구』 5, 한국근대문학회, 2004, 146-171쪽.
- 김종출, 「김정한론」, 『현대문학』 1969.1
- 김주현, 「1960년대 소설의 전통 인식 연구」, 중앙대 박사논문, 2006.
- 박종성, 『권력과 매춘』, 인간사랑, 1996.
- 송명희, 「김정한의 「수라도」에 나타난 여성원리」, 『현대소설연구』 5, 한국현대소설학회, 1996, 262-289쪽.
- 염무웅, 「농촌문학론」, 『창작과비평』 1970. 가을호.
- 이혜령, 「남성적 질서의 승인과 파시즘의 내면화」, 『현대소설연구』 16, 한국현대소설학회, 2002, 279-299쪽.
- 조갑상, 「요산 김정한 소설과 부산」, 『현대소설연구』 35, 한국현대소설학회, 2007, 27-46쪽.
- 한민주, 「1930년대 후반기 전향소설에 나타난 남성 매저키즘의 의미」, 『여성문학연구』 10집, 한국여성문학학회, 2003, 276-299쪽.

- 황국명, 「요산 소설의 지리적 상상력과 그 가치」, 『제11회 요산문학제 자료집』, 전망, 2008. 26-42쪽.
- Bristow, Joesph, 이연정 · 공선희 역, 『섹슈얼리티』, 한나래, 2000.
- Foucault, Michel, 오생근 역, 『감시와 처벌: 감옥의 탄생』, 나남출판 1994
- Foucault, Michel, 이규현 역, 『성의 역사 (1)』, 나남, 1993.
- Freud, Sigmund, 김종엽 역, 『토텐과 타부』, 문예마당, 1995.
- Ueno, Chizuko, 이선이 역, 『내셔널리즘과 젠더』, 박종철출판사, 1999.
- Weeks, Jeffrey, 서동진 · 채규형 공역, 『섹슈얼리티:성의 정치』, 현실문화연구, 1994.

<Abstract>

Sexuality expressed in literature of Kim Jeong Han, Yosan

Kim, Ju-Hyun

Sexuality is intrinsically social and cultural construction. This paper analyzed sexuality of social minorities described in literature of Kim Jeong Han, focusing around the influence of social power meddling in sexual discourse. First of all, the conventional women are salient existences in the works of Kim Jeong Han, and their meaning gets expanded while they appear in his latter works as well.

In the writings of 1930s, conventional women symbolizes traditional concept of then people about conventional women, averting 'modern women' discourse of the times and negative image of conventional women originated from the discourse. However, in the works of late 1960s, their image is altered to suburb women or lepers with inferior sexuality, dominated by the government or medical power, and castigates modernization project by showing high morality contrast to their petty body.

In 'Surado', a conventional woman is described as Lady Gaya, who reestablishes traditional beliefs associated with people-oriented Buddhism and overcomes feudalistic aspects of Confucianism. Meanwhile, she is also described as a comfort woman neglected by both Korea and Japan, who is only constructed by a writer in 'The letter from Okinawa'. Regarding these aspects, patriarchal voice

included in Kim Jeong Han's works contains self-reflecting recognition of nationalism and gender, which was not raised by then female movements.

Key Words : Conventional woman, Modern woman, Sexuality, Traditional ideas, National Literature in 1960s, Comfort woman